

가족건강성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Skills

정연정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

Yeon-Jung Jung(dian21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문제해결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2,422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매개변인 없이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제반 환경적 자극을 통해 아동들의 적절한 발달적 과업을 이루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가족건강성 | 문제해결능력 | 학교생활적응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and solving skills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ttain this purpose, it utilized the data which examine 2,422 elementary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chool social work in S City. The data collected is analyzed by frequency, correlation, regression with SPSS 2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 problem solving skills, school adjustment. Secondly, family strength directly affected the students without the mediator variable on school adjustment. Lastly, family strength had a decis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problem solving skills. Based on this results in the study, we need a strategy of sustainable family strength and solving skills in order to help school adjustment.

■ keyword : | Family Strength | Problem Solving Skills | School Adjustment |

I. 서론

1. 문제제기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에게 교사와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1-4]. 더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은 아동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자, 이후의 사회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예측지표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의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5].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개인, 가족, 학교의 영향이 확인되었다[6-9]. 이 가운데 특히 가족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의 긍정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6][10-12].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성장과 경험 및 인격형성의 가장 일차적인 장소로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부적응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의 결과로[13], 학교생활적응에 문제해결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가족건강성의 중장기 발달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14]. 또한 건강한 가족의 공통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4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유대관계(응집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가치공유로 언급된다[15].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원이 함께 노력하여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이란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관심에 따라 목표를 세우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

시 행동을 수정하며, 행동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6].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의 학습과 훈련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해결능력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문제해결능력에 관계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의 보호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으며, 자녀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9]. 한편,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고[20],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회피, 충동성, 부주의와 연관이 있으며[21], 학업중단 비행청소년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이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23].

이상에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족건강성과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즉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한 방안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가족건강성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문제해결능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과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은 아동들이 또래와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인 학업을 이행하며, 학교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다[24].

한편,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호와 양육,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은 아동의 학생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가족이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가족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가족의 다양한 특성들을 규명하여 제시한 개념이 ‘가족건강성’이다[25].

학교생활적응의 예측요인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건강성의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6][10-12].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는 자녀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증진시켜서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고, 자율적인 학업 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6].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족건강성이었으며[12],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가정에 대한 만족도 높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27],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28][29].

2. 학교생활적응과 가족건강성,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려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0].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가족의 건강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한 가족은 다양한 문제와 같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로 해결방안을 모색[31][32]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족은 위기나 가장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단합하는 가족이며 위기로 인해 오히려 가족이 단결하여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33]. 또한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일차적으로 가족끼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31].

한편, 문제해결능력은 아동의 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 간에 연관이 있고, 비행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이처럼 문제해결능력은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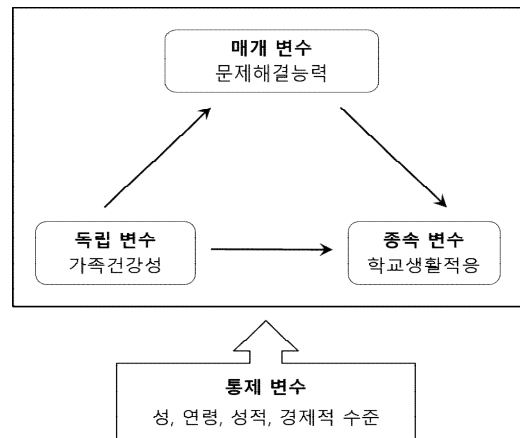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2016년 현재 경기도 S시의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56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3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 일반이다. 체계적 층화 표집으로 학년별 1개 이상 학급씩 표집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설문지는 2,422부이다.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 가족건강성

김상곤(2006)이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일부 재구성한 것으로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3문항), 가족간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4문항), 가족의 사회적 관계(3문항)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이고 원척도의 Cronbach's α 는 .900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0이다.

3.2 매개변수 :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노혜련·유서구·박화옥(2006)의 강점관점 척도 가운데, 대처능력과 자원요인의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이고 원척도의 Cronbach's α 는 .910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5이다.

3.3 종속변수 : 학교생활적응

김상곤(2006)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재구성한 것으로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태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칙, 학교행사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각각 2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원척도의 Cronbach's α 는 .891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0이다.

3.4 통제변인 : 성별, 나이, 성적, 경제적 수준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의 선정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나이, 성적, 경제적 수준을 모형검증에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가설인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enny 외(1998)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의하여 3단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검증은 Sobel의 z-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무응답 제외)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1,103	48.7
	여학생	1,161	51.3
학년	초 4	775	32.1
	초 5	821	34.0
	초 6	819	33.9
경제수준	매우 잘 산다	274	12.7
	잘사는 편이다	1,010	46.7
	보통이다	835	38.5
	못 사는 편이다	38	1.8
	매우 못 산다	5	0.2
성적	매우 잘함	373	16.7
	잘함	888	39.8
	보통	803	36.0
	못함	126	5.6
	매우 못함	42	1.9

2.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은 평균 42.03, 학교생활적응 45.20, 문제해결능력은 37.93로 중앙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값을 통해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였다. 첨도 값이 절대값 8 또는 10을 초과하면

정규분포를 벗어난 것이며, 왜도 값은 절대값 3을 초과하면 역시 정규분포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35][36]. 이에 따라 분석자료는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변인의 기술통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건강성	11	50	42.03	6.58	-0.796	.380
학교생활적응	14	60	45.20	7.60	-0.283	.012
문제해결능력	10	50	37.93	7.12	-0.191	-0.199

한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r=.638, p<.01$), 문제해결능력과 학교생활적응($r=.706, p<.01$)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r=.573, p<.01$)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을 선정할 경우 독립변인보다 종속변인과 더 큰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37].

이에 따라 문제해결능력변인은 가족건강성($r=.573$)과의 상관보다 학교생활적응($r=.706$)이 더 큰 상관이 있으므로 매개변인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가족건강성, 문제해결능력,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항목	가족건강성	문제해결능력	학교적응
가족건강성	-		
문제해결능력	.573**	-	
학교생활적응	.638**	.706**	-

** $p<.01$

3.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분석을 위해 Kenny 외(1998)가 제시한 검증방법에 의해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의 결과와 같다.

1단계는 문제해결능력에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R^2=.377$ 로 약 37.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250.397, p<.001$). 이밖에 통제변인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p<.01$), 나이(학년)가 높을수록($p<.05$), 성적이 좋을수록($p<.001$)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학교생활적응에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R^2=.476$ 으로 약 47.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374.197, p<.001$). 이밖에 통제변인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p<.001$), 성적이 좋을수록($p<.001$),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p<.01$)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단계별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모델 1 DV: 문제해결능력		모델 2 DV: 학교생활적응		모델 3 MV: 문제해결능력 DV: 학교생활적응	
		표준화 계수	t 값	표준화 계수	t 값	표준화 계수	t 값
-	상수항	-	15.598***	-	20.580***	-	14.317***
통제 변인	성별 ¹⁾	.056	3.217**	.094	5.856***	.067	4.754***
	나이 ²⁾	.044	2.485*	.030	1.876	.014	1.000
	성적 ³⁾	-.209	-11.491***	-.245	-14.697***	-.154	-10.133***
	경제적 수준 ⁴⁾	-.023	-1.258	-.046	-2.742**	-.034	-2.316*
독립 변인	가족 건강성	.514	27.855***	.558	32.945***	.320	18.133***
매개 변인	문제해 결능력	-	-	-	-	.451	25.141***
R ²		.377		.476		.599	
F 값		250.397***(df=5)		374.197***(df=5)		503.619***(df=6)	

* $p<.05$, ** $p<.01$, *** $p<.001$

¹⁾D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음을 의미. 준거집단: 남자

²⁾학년을 나이로 변수명을 조정하였음

³⁾성적은 1점 '매우 잘함'~5점 '매우 못함'으로 입력되어 있음

⁴⁾경제수준은 1점 '매우 잘 산다'~5점 '매우 못산다'로 입력되어 있음

3단계는 가족건강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매개변인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R^2=.599$ 로 약 59.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503.619$, $p<.001$). 이때, 매개변인인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여 독립변인인 가족건강성 역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p<.001$).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학교생활적응을 완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통제변인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p<.001$), 성적이 좋을수록($p<.001$),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p<.05$)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부분 매개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obel z-test를 실시하였으며[38],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능력이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Sobel z-test 검증

경로	a(SEa)	b(SEb)	Zab
가족건강성→문제해결능력→학교생활적응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555(.020) ⁵⁾	.477(.019)	2.758**

** p<.01

⁵⁾매개효과 검증에 필요한 비표준화계수의 B와 표준오차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S지역의 초등학생 2,422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가족건강성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가족건강성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학교생활적응 요인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현재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향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셋째, 가족건강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완충작용을 하는 변수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위한 가족과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건강성과 문제해결능력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족건강성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한 효과가 검증되어 이들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새롭게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통한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적인 요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담당해야할 역할임을 보여준다. 이에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아동은 가족체계와 구성원간의 관계 속에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가족원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은 가족건강성의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접근을 강구해야하다. 즉,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건강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확인되어 문제해결능력이 매개될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문제해결과정에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해결능력과 학교생활적응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관계를 밝힌 본 연구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초기 청소년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향상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종백, 김남희,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Vol.23, No.4, pp.697-714, 2009.
- [2] 심혜경, *아동우울과 지각된 교우관계, 교사,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
- [3]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지표를 통해 본 한국아동의 삶의 질*,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5.
- [4] 이정선, 이형실, “청소년의 우울관련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Vol.24, No.4, pp.77-89, 2012.
- [5] R. Caosnoe and G. H. Elder,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5, No.5, pp.22-34, 2004.
- [6] 김경은, 최은희,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9, No.4, pp.641-653, 2010.
- [7] 민동일,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8] 장성화,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인과적 구조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9] M. B. Barbara and J. G. Martha, “School adaptation: A triangular proc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36, No.2, pp.345-370, 1999.
- [10] 박민주, 황기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Vol.10, No.2, pp.43-51, 2007.
- [11] 이해경,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9.
- [12] 임정아, 이인수,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Vol.15, No.2, pp.37-62, 2006.
- [13] 이경란,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4] 강철, 김금희,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제7권, 제2호, pp.153-183, 2015.
- [15] 어은주, 유영주,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5, No.4, pp.269-285, 1997.
- [16] S. Sweeney and E. Homeyer, *Group Play Therapy*, San Francisco : Jossey Bass, 1999.
- [17] 박은영,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8] 조영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애착이 대인문*

- 제해결력에 미치는 차이,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9] 최인재,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Vol.15, No.2, pp.45-56, 2007.
- [20] 유명희, *중·고등학생의 온라인게임 이용빈도에 따른 게임중독과 사회적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1] 정다혜, 박종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Vol.17, No.1, pp.123-139, 2017.
- [22] 노안영,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3] 장정희,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5.
- [24] 김상곤,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가능한 다체계 사정도구 개발: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5] 김혜래, 최승희,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30호, pp.159-182, 2009.
- [26] D. L. DuBois, S. K. Eitel, and R. D. Felner,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pp.405-414, 1994.
- [27] 배정미, “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구조 분석,” *한간호학회지*, Vol.38, No.3, pp.454-464, 2008.
- [28] 이정윤, 이경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Vol.16, No.2, pp.261-276, 2004.
- [29] 장영애, 박정희,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13, No.2, pp.69-88, 2008.
- [30] T. J. D'zurilla, *Problem-solving therapy: A social competenc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6.
- [31] 유혜은, *가족 차생활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2] 이경은, “가족자원봉사경험과 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2권, pp.63-87, 2003.
- [33] N. Stinnet and J. Defrain,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1985.
- [34] 정다혜, *초기부적응 도식과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5] 김대업,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분석*, 학현사, 2008.
- [36] 배병렬, *AMOS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청람, 2007.
- [37] 김미정, 엄동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9, No.2, pp.1-29, 2013.
- [38] 이학식,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집현재, 2012.

저 자 소 개

정연정(Yeon-Jung Jung)

정희원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 2010년 9월 ~ 2013년 12월 : 수원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 2017년 8월 ~ 현재 :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사) 마중물 사무총장
- <관심분야> : 시민교육, 사회정책, 아동청소년복지